

234.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101) 내용제성이 낮은 박전사 프린트

□ 내용제성이 낮은 박전사 프린트

해설)

- 땀복을 드라이클리닝 처리했는데 현저하게 얇은 프린트 무늬가 탈락되었음. 통상 박전사 프린트는 천에 열 용해 타입의 수지를 프린트하여 베이킹한 후에 얇은 프린트 무늬를 전사하고 추가 열을 가한 후 정착시키고 있음.
- 사고품의 상태를 관찰하면, 윗도리 부분에서는 착용 마찰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적인 박리는 다소 있지만, 거의 전체에 문제가 될 정도의 박리는 볼 수 없으나, 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에 균일하게 박이 탈락되어 있음.



-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석유계 드라이클리닝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음.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일종인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석유계 용제보다 유지 용해력이 강함)로 가슴받이 밑부분을 가볍게 닦는 간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린트 자체가 소실되고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용해한 수지가 잔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이 박 프린트에 바인더로 사용된 수지는 유용성이며, 석유계 용제라도 반복 세정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또, 내수세성에 대해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노이겐 HC용액으로 닦는 간이 시험에서는 현저한 영향은 볼 수 없었음.
- 본제품은 착용자가 발한하는 스포츠 활동시에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주된 수용성의 땀 오염은 드라이클리닝에서는 떨어지기 어려운데다가 내수성의 높은 폴리에스터를 바탕천으로 하여 유용성 접착 수지에 의한 박 전사 프린트이기 때문에 기능성면에서 볼 때 내세탁성에서도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불가로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됨.
- 또, 판매시 얇은 프린트 무늬는 착용 마찰, 세탁 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